

# 적대와 환대\*

## —분단의 역사와 북한/탈북민 재현의 문화사—

임유경\*\*

### 〈차 례〉

1. 분단의 역사를 읽는 방법
2. 북한 재현의 역사와 탈/냉전
3. 탈북민 표상과 대중문화
4. 타자의 자리, 혹은 환대에 대하여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존재 방식과 이를 둘러싼 문화적 재현 양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변화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해를 새롭게 구성하고 분단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고찰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은 분단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두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상이자, 남북한이 어떠한 관계 동학 속에서 상호 이해를 구성해 나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이기도 하다. '우리'이면서 '타자'이고 또한 '타자'이면서 '우리'인 북한이탈주민의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위상은 북한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탈북민 재현의 문화사는 '타자의 자리'가 말할 권리와 말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서사에 대한 편집권의 인정이 주어질 때 비로소 마련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사유하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이제 '난민'이나 '외부자'로서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새롭게 지위를 획득해나가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한국사회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을 다면적으로 성찰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재현과 표상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는 시의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약 70년에 이르는 분단의 역사를 새롭게 성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재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북한이 처한 역사적이고도 현재

\* 이 논문은 2022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고 한국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살피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로 지칭되는 사회집단의 자기 구성 논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성찰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분단, 북한 재현,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문화산업, 적대, 환대, 타자의 자리, 『(황석영 북한 방문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공동경비구역 JSA>, <사랑의 불시착>, <이제 만나러 갑니다>

## 1. 분단의 역사를 읽는 방법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일정한 제도와 규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그러나 예술은 사회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그와 같이 존재해서도 안 된다. 급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술이 예술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때로 “탈도덕적이고, 탈법적이며, 탈정치적”<sup>1)</sup>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술의 힘은 이러한 규정 불가능성으로부터 비롯되곤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사회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예술을 관리하고 통제해왔다. 또한 통치방식의 일환으로서 검열은 단지 억압과 금지를 통해서만 작동하지 않았다. 검열을 통해 많은 담론과 새로운 관점, 논쟁을 위한 주장과 근거들이 생성되어왔음을 상기해볼 수 있다. 요컨대 검열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일정한 재능과 훈련을 필요로 하고 사회질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한국사회의 정치와 예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물론 한국의 경우 분단 체제로 인해 정치와 예술의 관계가 한층 새롭고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45년 8월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어 1948년 단독 정부 수립과 1950년 6·25전쟁을 통해 고착된 분단의 역사는 정치와 예술이 치열

1) 마르쿠스 가브리엘, 김남시 옮김, 『예술의 힘』, 이비, 2022, 92쪽.

2) 로버트 단턴, 박영록 옮김, 『검열관들: 국가는 어떻게 출판물을 통제해왔는가』, 문학과지성사, 2021, 310쪽.

하게 갈등하고 부딪치며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으며, 예술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수행하도록 이끈 절대적 요인이 되었다. ‘분단문학’이나 ‘반공영화’와 같은 개념은 정치와 예술의 갈등이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문화사적 흐름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 개념들은 분단을 둘러싼 문제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매개하지 않고는 구성될 수 없었음을, 더불어 북한 이해 역시 ‘분단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려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재현의 문화사를 살피는 일이 북한에 대한 이해가 구성된 방식을 되짚어보고 분단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과 북한이탈주민 재현의 역사에 대한 통시적 검토를 통해 문학연구가 어떻게 역사적 차원과 관계하고 당대의 현안들과도 조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총 33,857명의 탈북민이 국내에 유입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인구 유입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이르러 2,914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된다. 최근의 감소 경향은 북한의 정권 교체와 코로나19 등의 요인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sup>3)</sup>

1990년대 이후 시작된 대규모 인구 유입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서 부상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군사·외교적 차원에만 한정되거나 정부의 정책적 논의 대상에만 머무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사회의 변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학계의 다양한 연구들은 정책면에서나 사회인식의 차원에서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 이를테면 공식 용어 채택 및 사용에 관한 문제, 탈북 경위와 목적, 탈북민의 정착 현황과 실태, 역대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 방식,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며 형성되고 있는

3)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무편람』, 통일부, 2022, 9~10쪽.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 탈북민의 지위와 인권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서 다뤄지고 있다. 또한, 탈북여성, 탈북청소년, 탈북문학, 탈북민 수기와 자기서사 등과 같이 보다 다양한 주체와 대상에 대한 연구가 제안되고 있으며, 정부의 문헌이나 언론의 보도기사, 소설·영화·TV드라마와 같은 문화예술 텍스트를 자료로 삼아 북한이탈주민의 재현에 관한 문제를 살피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sup>4)</sup> 이러한 연구 동향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문제가 ‘북한연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정치·사회·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알려주며, 향후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탈북민의 존재 방식과 삶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기 위한 인문학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탈북민이 어떠한 담론체계 안에서 이야기되고 또 어떠한 재현 방식을 통해 사회와 일반 대중의 인식 속에 수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최근의 연구 경향을 수용하는 가운데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재현의 문화사를 새롭게 구성하는 일을 통해 분단 이해의 역사적 흐름과 시기별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재현의 역사성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표상과 인식의 계보를 구성하여 제시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자체를 대리하는 존재로서 가정되고 상상되었으며 그들의 표상은 북한 인식과 재현 방식을 가장 집약적인 형태로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재현 방식들이 북한에 관한 고

4) 관련 연구로는 김경연·황국명, 『경계에서 이야기하기: 탈북여성의 자기서사와 ‘다른’ 고백의 정치』, 『코기토』 통권 97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김성경, 『글로벌 대중문화와 생존자의 이야기: 해외출판 탈북 여성 수기의 식민적 시선과 젠더화된 서사』, 『한국여성학』 제38권 제2호, 한국여성학회, 2022; 김종균·정진아,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 박이정, 2013; 박정란·강동원, 『탈북여성 연구: 동향, 쟁점,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1; 방민호 외, 『탈북 문학의 도전과 실험』, 역락, 2019; 손애리·이내영,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19권 제3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2; 신효숙·김창환·왕영민,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시공간적 경험 공유 집단 분석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속성 재해석』, 『통일인문학』 제67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이선민, 『탈북 여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29권 제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등이 있다.

유한 담론체계를 어떻게 계승하고 또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논문은 문화적 재현의 방식들이 당대 사회의 인식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동시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식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발생시킴으로써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한층 복잡화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현되어 왔는데, 이때 재현이 어떠한 특징과 문화사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문학적 재현 방식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이 논문은 전형적인 북한담론과 길항하고 갈등하면서 예외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의 재현을 시도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유형화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소설, 영화, TV드라마 등의 여러 장르에서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이 재현된 양상을 살피고 여기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가 엿보이는지를 논의함으로써 매체간 영향 관계와 재현 방식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논문은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존재 방식과 이들을 둘러싼 문화적 재현 양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변화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해를 새롭게 구성하고 분단의 역사를 중층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분단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두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상이자, 남북한이 어떠한 관계 동학 속에서 상호 이해를 구성해 나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이기도 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입되는 인구의 양적 증가는 그들을 담론화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출현시켰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단지 ‘난민’이나 ‘외부자’로서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새롭게 지위를 획득해나가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한국사회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을 다면적으로 성찰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재현과 표상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는 시의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약 70년에 이르는 분단의 역사를 새롭게 성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재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북한이 처한 역사적이고도 현재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고 한국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통시적으로 살피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로 지칭되는 사회집단의 자기 구성 논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성찰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북한 재현의 역사와 탈/냉전

북한 재현을 둘러싼 복잡한 맥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에 대한 지배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표상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복잡한 역사적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은 가장 유력하고 절대적인 ‘적’(敵)으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대가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특정 시기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상황이나 남북 관계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북한을 담론화하는 방식에 있어 일정한 차이가 발생했고, 북한의 지배적 표상 역시 조금씩 다른 패턴을 보이며 변화해 왔다.

북한 표상의 변천 과정은 그 자체로 각 시대가 추구한 이념이나 지배적 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의 통일관과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보여준다. 분단의 고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의 여파로 인해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 대한 상호 인식을 명확하게 가질 수 없던 시대였다. ‘동족상잔’(同族相殘)이라는 표현 외에는 전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었던 시대 현실을 떠올려 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전쟁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성되는 공동체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침략자’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말해질 수 없었다. 1950년의 6·25전쟁은 적에 관한 상상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

으며, 이 사건의 충격과 공포로 인해 북한이 이야기될 수 있는 맥락은 한없이 축소되었다. 또한 “멸공”으로 대표되는 반공담론이 잘 보여주듯이, 북한은 공산주의로 타자화되었음에도 민족적 신체의 일부에 포함됨으로써 ‘동질적 민족’(삶을 부여받은 민족)이자 ‘공산주의에 대한 급진적 타자’(죽음이 놓여지는 위치)라는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표상을 부여받게 된다.<sup>5)</sup> 나아가 전쟁은 남한의 주민들을 새롭게 ‘한국인’으로서 발견하게 만든 사건, 더 정확하게는 한국인으로서 재구성되도록 이끌었던 원초적 사건이 되었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재현은 이율배반적 성격을 띠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져왔다. 1950년대가 전쟁에 대한 공포 속에 북한이 유력한 ‘적’으로서 부상한 시대였다면, 1960년대는 간접전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현대적 기술들을 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담론과 표상을 형성하고 또 재구성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군부정권하에서 소설, 영화, 라디오, TV드라마 등을 통해 ‘북한’은 사회 전체가 그 자체로 ‘수용소’나 ‘지옥’과 같이 재현되었고 이와 대비되는 방식으로 남한은 ‘자유의 땅’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재현 방식이나 표상 체계는 이후 1970년대까지도 큰 변화 없이 북한 담론을 구성하는 기반으로 유지된다.

그런가 하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경제적 성장이 둔화되고 생산성 저하의 징후들이 가시화됨에 따라 북한에는 차츰 ‘빈곤과 기아’의 이미지가 드리워지기 시작한다. 그뿐만 아니라 1990년대를 거치는 동안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서 북한은 빠르게 낙후된 사회의 전형으로 그 이미지가 굳어져 간다. 이 시기에 접어들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탈북자의 수는 북한사회가 얼마나 크게 동요하고 있는지, 더 중요하게는 그곳이 ‘더 이상은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가 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북한은 새로운 맥락을 부여받고 있기도 했는데 이 맥락이 어떤 성격을 띠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9년도에 발생한 ‘방북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황석영, 문익환, 임수경 등의 인사들이 연이어

5) 테드 휴즈, 나병철 옮김,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자유의 경계선』, 소명출판, 2013, 340~341쪽.

입북했다는 소식은 한국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정부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의 방북은 ‘밀입북’에 해당했고 이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였다. 이전에 발생한 무수한 간첩단 사건들은 ‘방북 이력’이 중형을 언도하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인들에게 주지시킨 바 있었다. 아무리 1980년대 후반기가 정치적 격변기였다고 해도 정부의 허가 없이 민간 차원에서 방북을 감행하는 일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이자 일생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모험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익환 목사보다 며칠 더 빠른 시점에 이 금단의 땅을 밟았던 이는 다름 아닌 작가 황석영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남한작가”<sup>6)</sup>가 된다. 또한 황석영은 문익환 목사와 달리 방북을 마치고 바로 귀국길에 오르는 대신, 약 4년간 독일과 미국 등 해외에 머물면서 방북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매진한다. 1989년 2월 28일 『무기의 그늘』 일본어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다는 명목하에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던 그가 북한 방문과 해외 체류를 끝내고 귀국한 것은 1993년 4월이었다.

“사람이 살고 있었네”<sup>7)</sup>

황석영은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당시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가 이 기록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는 저작물의 제목이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위의 예문이 보여주듯이 황석영은 북한에서 대면하게 된 것이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이 선언적 주장, ‘그곳에 사람이 있으며, 삶이 있다’는 주장은 오랜 시간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던 반공 이념에 물든 언어들을 흔들며 강고하게 작동하던 북한 재현 체계를 잠시나마 중단시켰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자면, 황석영의 말은 지극히 단순하고 별다른 것이

6) 『신동아』 1989년 6월호에 실린 인터뷰 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위임, 『(황석영 북한 방문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시와사회사, 1993, 173쪽.

7) 황석영이 쓴 ‘북한 방문기’의 제목이다. 위의 책.



없는 주장처럼 들리지만, 당대 현실 속에서 이는 이전의 재현 체계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 발화가 되었다. 기존의 담론과 인식, 그리고 상상력의 임계에 도전하는 방북기를 씀으로써 북한을 설명하는 언어들에 내재되어 있던 맹목과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1990년대가 목전에 다다른 시대에 당도해서야 ‘북한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전 시대의 통치 담론과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도저한 자기동일성 속에 움직이며 재생산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황석영의 방북과 그의 북한방문기는 더 이상 북한이 풍문이나 뉴스를 통해, 혹은 활자로 기입된 문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에 머물지 않게 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다.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제목을 내건 그의 방북기는 북한과의 실제적 대면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전환되는 최초의 장면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담론의 장막, 그 이데올로기화된 언어적 세계로부터 ‘북한’을 이탈하게 만들었다.

1980년대 후반기의 많은 변화들, 이를테면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 민주화선언, 이듬해인 1988년도의 남북 관계의 개선과 대공산권 외교 정책의 변화를 표명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 ‘북한 바로 알기 운동’, 남·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 조치, 그리고 1989년의 보안감호제도 폐지와 장기수의 출옥, 황석영·문익환의 방북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북한’이나 ‘통일’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맥락들을 부여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1990년대의 어느 시사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번져가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다양한 매체와 텍스트를 통해 이전까지는 침묵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정치적·사회적 이슈들이 다뤄질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담론을 생성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90년대의 문화적 변형은 다양한 문화예술 텍스트의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문화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이념의 언어가 있던 자리들은 다른 가치를 내재한 새로운 언어들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억압적이지만 그래서 숭고한 의미를 지닐 수 있었던 거대 담론들이 어떻게 상업화의 힘 속에서 포말처럼 부서지며 흩어져갔는지를 목도하게 했다.

20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분단 재현의 다각화가 본격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개봉한 영화 <쉬리>(Swiri, 1999), <간첩 리철진>(The Spy, 1999), <공동경비구역 JSA>(Joint Security Area, 2000)는 분단 체제 속 남북 관계 문제를 소재로 삼아 20세기 후반기 탈-냉전이라는 시대 전환과 한국사회의 무의식적 징후들을 그려냈다. 이때의 징후들은 지난 역사적 시간 속에서 구성된 한국의 독특한 근대성과 관련된 것이면서,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의한 이념의 해체, 이와 맞물려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유입, 남북한 관계의 화해 무드와 함께 지속되던 간접전쟁들, 세기 전환의 경험에 따른 불안정성 등 복잡한 사회변동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세 편의 영화는 이러한 징후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루었다.<sup>8)</sup> 그런 점에서 이 영화들은 분단을 소재로 삼아 냉전적 세계 인식의 해체가 시대 전환의 경험이나 일상의 무의식적 욕망들과 맞물리면서 전개된 과정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라는, 남한 대중의 무의식에 낯설고도 균질적인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던 대상을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몇몇 형상들로 스크린 위에 데뷔시킨 흥미로운 사례”<sup>9)</sup>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중에서도 박상연의 소설 『DMZ』(민음사, 1997)를 원작으로 삼아 기획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는 남북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서 당시 한국사회에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의 문화예술 텍스트들은 명확한 대비구도 속에서 분단 문제를 다룸으로써 선악으로 이분화된 세계를 제시하였으며, 북한이라는 대상에 ‘적’이라는 표상을 강력하게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냉전적 세계 인식의 해체가 더 이상은 이

8) 박명진, 「타자와의 조우, 망각된 미래의 현상학: 분단 체제에 말을 거는 3편의 영화」, 『문화과사회』 통권 제53호, 문학과지성사, 2001, 185쪽.

9) 백문업, 「‘탈이념’의 정치학: <쉬리>, <간첩 리철진>, <공동경비구역 JSA>」,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공동경비구역 JSA』, 삼인, 2002, 107쪽.

전과 같은 방식의 적대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알려주었다면,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국제사회의 변동으로서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 체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상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남북 관계의 전환을 목도하게 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 사건은 90년대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한국의 문화산업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분단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문화콘텐츠의 생산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영화의 경우, ‘북’에 관한 다양한 제재가 새롭게 부상하고 재배치되면서 표상의 다원화가 시도되었다.<sup>10)</sup>

〈공동경비구역 JSA〉는 북한을 ‘적’이라는 표상으로만은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시대에 도착했음을 인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역학과 남북 관계의 변화를 반영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적 전환을 통해 기존의 북한 재현 방식에서 발견되는 한계를 사유하게 만드는 한편, 향후 ‘분단’이나 ‘북한’이라는 이슈가 문화산업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하나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했다. 실제로 해당 영화를 계기로 북한을 다르게 재현하려는 시도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의형제〉(Secret Reunion, 2010)는 남한과 북한 출신의 인물들을 ‘의형제’라는 이름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한층 과감한 상상력을 펼쳐 보여주었다. 특히 매력적인 주인공을 통해 ‘간첩’의 표상과 이미지를 쇄신하며 새로운 연대에 대한 상상력을 개진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영화는 전환의 시대에 당도하여서도 여전히 분단 문제가 남성 중심의 서사에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분단 문제를 형상화하는 데 있어 여성의 위치는 항상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인 성격을 띠었다. 또한 2000년대에 쏟아져 나온 일련의 작품들은 어떻게 무거운 역사적 함의를 가졌던 ‘분단’이라는 이슈가 유용하고 효과적인 상업 영화의 소재로서 주목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되기도 했다.

10) 박유희, 「고립된 전사, 경계의 타자: 탈냉전시대 한국전쟁 영화에 나타난 ‘北’의 표상」, 『민족문화연구』 제58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756쪽.

1950년 6·25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분단 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문화예술 분야는 문학, 그중에서도 소설이었다. ‘분단 문학’이라는 개념이 출현할 만큼 많은 작가들에 의해 분단 문제가 꾸준히 다루어져 온 것이다. 최인훈, 이호철, 이청준, 박완서, 김원일, 임철우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단 문제를 조명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김영하의 『빛의 제국』(2006)은 북으로의 귀환 명령을 받은 남파간첩 출신의 주인공을 통해 탈냉전 시대에도 지속되는 냉전의 정치와 이러한 세계에서 이념의 의미를 되묻는 개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김기영은 분단국가의 상징인 ‘스파이’이지만,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한 그는 ‘남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갖게 된다. 잊고 있던 운명(‘북으로 귀환하라’)과의 대면은 지난 시대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의 연속성과 간극을 들여다보게 하며 ‘분열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적 물음(‘나는 누구인가’)을 갖게 한다. 기존의 분단 문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역사와 개인의 문제를 살피는 이 소설은 ‘내셔널 히스토리’로 수렴될 수 없는 개인의 실존을 2000년대의 시대적 맥락에서 재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가 하면, 『로기완을 만났다』(조해진, 2011)나 『아버지의 해방일지』(정지아, 2022)와 같이 여성 작가들에 의해 씌어지는 소설들은 기존 분단 문학의 문법을 전유하면서 남성 중심적 서사를 해체하는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여성 작가들의 손에서 탄생한 분단 문학은 기존의 분단문학사가 그려내던 세계의 지평을 성찰하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문학사의 흐름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영화나 TV드라마에서도 분단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된 바 있으나 대개는 반공이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1964년 이만희 감독의 <7인의 여포로> 사건은 문예재판의 형식을 통해 작품과 감독에 대한 사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창작의 자유를 급속히 위축시켰던 첫 사례에 해당한다. 공안당국은 이 사건을 통해 ‘적’의 형상화 방식에 있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공국가에서 자유의 임계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까지 지속된다.

1988년 대중상에서 반공영화상과 안보 부분 작품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을 전후한 시기의 정치적·문화적 격변을 엿보게 한다.<sup>11)</sup> 1964년 이만희 감독의 <7인의 여포로>가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된 역사적 사건이 있고 나서 ‘반공주의’가 깊게 그림자를 드리웠던 한국영화계에 북한군이 고유한 인격을 소유한 ‘인간의 형상’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인 1990년대에 이르러서이다.<sup>12)</sup>

1990년대 후반부터 6·25전쟁,<sup>13)</sup> 간첩,<sup>14)</sup> 비전향장기수,<sup>15)</sup> 북한이탈주민<sup>16)</sup> 등 ‘분단’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영화의 주요한 소재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중에는 반공이념의 자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과 한국사회가 침묵했던 사건들을 조명함으로써 분단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전환을 이룬 사례도 있다.<sup>17)</sup> 그러나 그보다 많은 수의 작품들이 이른바 ‘분단문화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상업적 목적을 띠고 대중문화의 한 경향으로서 분단 문제를 취급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작과 함께 본격화된 이러한 2000년대적 현상은 ‘분단’이나 ‘북한’에 관한 논의가 정부나 정치권력, 혹은 지식인의 관심 대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전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는 점과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예술을 매개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측면을 가졌다. 그러나 추후 살펴 보겠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이나 중국조선족과 같은

11) 이현진, 『분단의 표상, 간첩: 2000년대 간첩영화의 간첩 재현 양상』, 『씨네포럼』 제17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3, 92쪽.

12) 한영현, 『탈냉전 시대 한국 영화와 분단의 심상지리적 상상력: 영화 <고지전>과 <공동경비구역 JSA>를 중심으로』, 『문화과 영상』 제15권 제3호, 문화과영상학회, 2014, 685쪽.

13) <태극기 휘날리며>(2004), <웰컴 투 동막골>(2005), <고지전>(2011), <인천상륙작전>(2016) 등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14) <쉬리>(1999), <간첩 리철진>(1999), <공동경비구역 JSA>(2000), <경계 도시>(2002), <이중간첩>(2003), <그녀를 모르면 간첩>(2004), <의형제>(2010), <스파이 파파>(2011), <간첩>(2012),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베를린>(2013), <붉은 가족>(2013), <강철비>(2017), <공작>(2018) 등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15) 다큐멘터리 영화 <송환>(2004)이 대표적이다.

16) <크로싱>(2008), <두만강>(2011), <48미터>(2013), <뷰티풀 데이즈>(2018) 등이 있다.

17)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 <송환>(2004)과 <무죄>(2007)를 들 수 있다.

주체들을 대상화하고 타자화했으며, 특정한 프레임 속에서 유사 재현을 반복함으로써 일견 편향되고 단순화된 인식을 양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면, 영화 장르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TV드라마의 경우 북한이나 분단 문제를 다루는 일이 훨씬 더디게 시도된다. 식민지 시기나 해방기의 시대 현실을 다루는 일에 비해, 분단 현실을 새롭게 조명하고 재현하는 일은 동시대의 정치나 사회 문제와 직결된 측면이 있어 더 많은 난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영화 장르에서는 ‘간첩’ 소재가 90년대 후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다뤄진 바 있으나 TV드라마의 경우 ‘간첩’을 주인공으로 삼아 남북문제를 전면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해당하는 드문 사례로 2021~2022년 방영된 <설강화>(JTBC)가 있으나 ‘간첩 미화’와 ‘역사 왜곡’ 등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한편, 해당 드라마보다 2년 앞선 시기에 방영된 한 드라마는 북한의 일상을 전면화하여 재현하는 일을 과감하게 시도하여 크게 회자된 바 있다. 2019년 12월부터 방영을 시작하여 2020년 2월 종영한 16부작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tvN)은 한국에서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각광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는 마치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상시키듯 북한과 남한에 거주하는 두 남녀 주인공이 정치 현실의 장벽에 맞서 싸우며 불가능한 사랑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남성 주인공이 북한 국적의 소유자라는 점과 드라마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북한의 일상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재현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이에 비해 보수적인 성격을 띠는 TV드라마의 경우 그와 같은 재현이 쉽게 시도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는 동시대 북한사회에 대한 재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또한 그렇게 재현된 북한의 현재를 한국인들의 인방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성 주인공이 북한에 불시착한 후 경험하게 되는 북한사회와 문화, 그곳의 일상과 사람들의 삶을 시청자는 대리 체험하게 된 것이다. 1989년의 시점에서 작가 황석영이 예외적 개인으로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사람이 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화했다면, 이 드라마는 그러한

발화를 하나의 서사로 구현하여 TV스크린에 상연했다.

해당 드라마의 사례는 이외에도 몇 가지 더 흥미로운 점들에 주목하게 한다. 그중 하나는 북한이 ‘고종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마치 역사드라마를 제작하듯이 북한을 재현하는 일은 전문가의 자문과 같은 일정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 되었다. 실제로 이 드라마의 각본 제작 과정에는 탈북자 출신의 보조작가가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는 북한의 사택미를 풍경이나 신혼집의 모습, 보위사령부 등과 같은 주요 배경이 되는 장소들을 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북한’을 재현하는 일이 옛 문헌에 적혀 있는 기록들을 재구성하여 과거 시대를 복원하는 일처럼 일정한 고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이 드라마는 북한을 재현하는 일이 여전히 어떤 곤란함 내지는 난점을 가진다는 점을 확연히 보여주기도 했다. 본 작품은 ‘로맨틱 코미디’를 표방하지만, 극의 초반부는 흡사 판타지물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설정들로 가득하다. 특히 여성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돌풍에 휩싸여 철조망 너머의 북한 땅에 ‘불시착’하는 모습은 상상이 아니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장면처럼 보인다. ‘불시착’이라는 개연성 없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북한으로 진입하거나 그곳에서의 일상을 체험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재현하는 일이 누군가의 증언이나 활자화된 기록을 통해, 혹은 문화예술매체가 그려내는 스크린 속 세계를 응시하는 일을 통해서만 가까스로 가능해지는 일임을 새삼 환기시킨다. 1960년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명준이 2020년대에 접어든 현재에도 여전히 예외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와 같은 허구의 세계에서조차 ‘자의에 의한 월경(越境)’이 수행될 수 없는 금기적 행위로서 남겨져 있음을 상기하게 만든다.

이 드라마는 정치적 해석을 유발할 만한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문법에 충실함으로써 시청자들이 거부감 없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지만, 또한 이 드라마가 상업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갖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해당 드라

미에서 북한은 노스텔직한 문화 상품으로서 제시된다. 극 중에서 북한은 비록 낙후되어 있으나 한적하고 전원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으며 순박하고 인정이 넘치는 세계로 그려지며, 이에 비해 남한사회는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 풍경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인간관계가 부각되는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대비는 주요 배경이 되는 마을과 도시 공간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주거 형태와 의식주, 패션과 헤어스타일, 작은 소품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디테일한 설정 전부를 통해 뒷받침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대비로 인해 두 세계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극(문명의 격차)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현재는 일면 낡고 오래되었으나 이제는 부재한 우리의 ‘지나온 과거’처럼 묘사되는데, 이는 ‘후진국 북한’의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문명화의 위계를 가시화한다. 남한적인 방식으로 재코드화된 북한은 낯설지만 익숙한 대상이 된다. 이는 북한을 호전적인 적국(敵國)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의 코드화 방식을 해체하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방식으로 북한을 형상화함으로써 마치 북한을 잃어버린 과거적 세계의 파편처럼 상상하게 만든다. 또한 이로 인해 북한은 가난의 표상만 짙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온갖 낡은 것의 표상’으로서 대두된다. 이러한 ‘노스텔지어’(nostalgia)는 그러한 과거가 실은 부재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상실된 것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지극히 근대적이며 또한 정치적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는 1999년에 개봉한 영화 <간첩 리철진>으로부터 그리 멀리 나아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노골적이고 분명한 방식으로 남한 대중의 나르시시즘을 자극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고착된 인식을 새롭게 재생산한다. 과거의 리철진이 “이념이라는 것에 수반되는 갈등과 전쟁의 이미지가 거세된, 배고픈 시골 친척의 이미지”를 내포하며 북한의 기아 문제에 대한 남한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을 위한 매개물”이었다면,<sup>18)</sup>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의 드라마가 오랫동안 반

18) 백문인, 앞의 글, 121쪽.



북 재생산하던 자본주의적 욕망을 내셔널리즘의 상품화와 결합시킴으로써 나르시시즘을 재구조화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한편, 2000년대의 시점에서 북한을 재현하는 일은 비단 한국사회에서만 시도되지 않았다. 2002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북한이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선언되고 난 후, 북한은 부정적 의미에서 매우 유명해졌다. 서구의 영화나 드라마에 북한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를 계기로 해서이다. 북한을 재현하는 최근의 사례들은 유사한 맥락 속에 북한을 위치시킴으로써 ‘악의 축’이라는 선언을 보충할 만한 문화적 재현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1월에 방영된 영국 BBC 드라마 〈Sherlock〉은 아서 코난 도일의 원작 소설이자 추리물인 〈셜록 홈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드라마의 시즌3에 북한이 등장한다. 시즌3의 에피소드1 〈빈 영구차(The Empty Hearse)〉편에 주인공인 셜록 홈즈(베네딕트 컴버배치 분)가 지하 테러조직망이 런던 테러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정보에 대해 언급하며 범행 패턴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다. 기득권층의 핵심 인물이자 해외 개발부 장관으로 등장하는 세습 귀족인 모런 경에 대해 설명하는 와중에 셜록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1996년부터 [모런 경이-인용자]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다.”<sup>19)</sup>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에 방영된 미국 Showtime 드라마 〈Homeland〉의 경우, CIA와 알 카에다에서 탈출한 미군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첩보전을 그리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시즌6의 제3화에 북한이 등장한다. 제3화에서는 이란과 북한의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 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이 제시된다. 극 중에 등장하는 미국 CIA 관료가 이란의 핵무기 자금을 움직이는 중요 인물을 만나 이란이 핵 협상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장면에서 북한이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이란 측 관료가 전용기를 타고 북한에 있는 삼지연 공군기지로 갔다는 정보를 확인하는 이 장면에서

19) BBC 드라마 〈Sherlock〉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bbc.co.uk/programmes/b018ttws>

CIA 국장은 옛 부하직원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란이 북한에서 폭탄을 제조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하지?”<sup>20)</sup>

이 사례들은 2000년대에 북한이 차지하는 세계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비록 냉전은 끝났지만, 탈냉전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첩보물이나 범죄서사에서 북한은 새로운 적의 얼굴을 하고 등장한다. 물론 북한은 이전 시대의 소련과 같은 압도적 힘을 발휘하는 강력한 타자로서의 위상을 갖지 않으며, ‘테러’라는 표현이 지시하고 있듯이 예측할 수 없는 게릴라적 전법을 구사하는 다루기 까다로운 정치체로 묘사될 뿐이다. 즉 북한은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갈등 요인으로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지원국’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이란과 연결 짓고 상호 연계성을 가정하는 문화예술 텍스트들의 상상력은 2001년 9·11사건 이후 선언된 ‘악의 축’에 관한 정치 담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여기에는 통제 불가능하며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수반되어 있기도 한데, 이는 ‘악’의 형상에 ‘병리성’을 부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은 이른바 현대의 ‘정상적 외교’ 관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치체로서 ‘범죄집단’ 또는 ‘불량국가’로서의 표상을 강하게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표상들은 문화적 재현의 형식들에 의해 재생산됨으로써 냉전의 적이 사라진 시대에, 그 자리를 대신할 만한 여러 형태의 적들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부상시켰다. 또한 북한에 ‘새로운 이름’(terrorist)을 부여함으로써 ‘적이지만 냉전시대의 적이 가졌던 막대한 표상이나 의미를 소유할 수는 없는 적’으로서 그 위상을 분명하게 규정하기도 했다. 9·11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배적 반응 중 하나가 ‘불명예스럽다’는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기억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같은 적이 초래하는 피해는 그 자체가 슬픔과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쾌함을 동반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병리성이나 적으로서의 위상을 규정하는 시선은 사실 그리

20) Showtime 드라마 〈Homeland〉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sho.com/homeland>

낮선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은 이전 시대만큼 위협적인 타자나 공포를 몰고 오는 강력한 적으로서의 위상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이전의 표상들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던, 설명할 수 없으나 분명 실재한다고 믿었던 힘을 상실했음을 알려준다. 문화예술 텍스트들에서 북한이 더 이상 위협천만한 공포의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점을 방증한다. 1999년에 개봉된 <간첩 리철진>의 한 장면이 잘 보여주듯이, 남과 공작원 출신의 주인공이 감행하는 위험한 발화(‘나는 북에서 온 간첩이다’)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를 몰고 오는 무서운 자기 폭로가 아니라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말이 된 시대에 도착한 것이다. 고정 간첩의 딸인 ‘화이’의 말처럼 간첩신고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겠다는 1억 원의 보상금은 ‘괜찮은 외제차 한 대 값’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현실은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하에서 강고한 힘을 가졌던 ‘간첩 자수와 신고’에 대한 국가의 언명이 20세기 말의 시점에 당도해서는 시대착오적이며 부조리한 것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런가 하면, 무수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북한 관련 소식들은 북한 체제나 북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병리적이며 도착적인지, 또한 극악하고 비합리적인지를 계속해서 상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도자의 외양이나 복장, 집무실 풍경, 가족들의 모습을 관음증적이며 소재주의적으로 다루는 뉴스들에 의해, 북한은 마치 ‘정상국가’를 연기(演技)하는 주체처럼 현시된다. 특히 보수성향의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북한은 반공이념, 반복 정서, 자본주의, 가부장제 등과 연계되어 원색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조롱과 회화화의 방식을 통해 우스꽝스럽게 전시된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중요한 사안을 판별하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도달할 수 없는 ‘유일한 장소’에 해당하지만, 다양한 매스미디어들은 일상적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북한을 상연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기게 한다. 이것은 가상적 재현이거나 대리적 체험을 매개하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착오와 오인

을 발생시킬 소지를 내포하지만, 정형화된 의미를 생산하는 재현 체계들에 의해 이러한 착오와 오인은 잘 보이지 않게 된다. 또한 중요하게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증언을 통해 체험의 공백을 대리 보충해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우리의 앎이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나아가 북한 체제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 존재들은 그 자체로 북한을 재현하고 있는 ‘현실’이 되기도 했다.

### 3. 탈북민 표상과 대중문화

한국사회에서 북한이 분단 문제를 사유하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매개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면, 북한을 대리하는 주체로 상상되었던 것은 북한에서의 삶을 체험하고 분단의 경계를 넘어 온 ‘탈북자들’이다. 이 경계를 넘어 온 타자에 대한 이야기는 분단 직후인 1940년대 말부터 회자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북에서 온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의 역사는 탈북민, 나아가 북한에 관한 인식의 계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개념이나 재현 방식의 변천 과정은 한국사회가 이들을 수용해온 양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1948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북에서 온 사람들은 주로 ‘월남민’이나 ‘귀순자’라는 호칭을 통해 지칭되었다.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북종하거나 순종함”이라는 정의가 잘 보여주듯이 ‘귀순’(歸順)은 분명한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내포하는 정치적 용어였다. 당시 ‘귀순’과 함께 흔히 쓰였던 ‘월남’(越南)이라는 단어가 삼팔선이나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을 가짐으로써 주체의 행위에 대한 기술적 설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귀순’은 행위 목적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귀순자들의 존재는 남한이 ‘자유’라는 표상을 갖게 되는 데 기여했다.

분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이미 “38선을 넘어 귀순”해오는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는 “자유와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매개되었다.<sup>21)</sup> 이후로도 ‘귀순자’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자유’라는 말은 빠짐없이 등장하게 된다. 요컨대, 귀순자들은 ‘생지옥과 같은 공산치하의 북한사회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로서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가장 명징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또한 “반공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sup>22)</sup>하고 실제로 그에 부응하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북한의 지배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용어들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흥미롭게도 이때 등장하는 용어는 사실 남한정부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나타내는 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던 것이기도 하다. 1960년대 한국정부는 ‘가난’에 대한 공포를 매개하여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국민들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 시기 박정희 정권이 생산한 정치적 담론은 대한민국의 낙후성과 후진성을 강조하면서 ‘빈곤’과 ‘공산주의’를 당대의 주된 ‘적(敵)으로 부상시켰다. 주목할 점은 197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어 한국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던 ‘빈곤’이라는 표상이 북한의 지배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변모해 갔다는 것이다. 1977년도에 귀순한 북한 병사의 증언(“한마디로 배가 고프 귀순했습니다”<sup>23)</sup>)은 귀순의 목적이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띠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즉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던 ‘이념형 귀순자’들을 대신하여 경제적 빈곤을 표상하는 ‘생계형 이주자’들이 출현하였던 것인데, 실제로 이 시기를 기하여 북한 표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sup>24)</sup> 또한 이것은 ‘귀순자’라는 개념이 더 이상 ‘북에서

21) 『인민군 귀순』, 『경향신문』, 1949.9.4.

22) 『붉은 생지옥서 탈출 “자유 만세”』, 『동아일보』, 1968.11.30.

23) 『북괴 귀순병의 증언』, 『경향신문』, 1977.2.18.

24) 임유경, 『북한 담론의 역사와 재현의 정치학: 1950~1970년대 북한 담론의 형성과 변환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6집, 상허학회, 2019, 48~49쪽.

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유력한 용어로 사용될 수 없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도 했다. 1970년대부터 출현한 ‘생계형-귀순자’라는 표상은 사실 그 자체로 모순적 성격을 띠었으며, 북한의 빈곤과 남한의 발전을 분명한 대비 속에 부각하기 위해서는 이념성(귀순)보다는 현실적 맥락(생계)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생계형-귀순자’를 대신하여 ‘생계형-이주자’의 표상이 부상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강조 하던 기존의 담론들을 대신하여 양자의 관계를 정치적 경쟁체제가 아닌 새로운 경제적 위계 속에서 재배치할 담론이 구성되고 있던 시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정치적 이유로 조국을 떠난 ‘망명자’(defector)의 정체성에, 노동과 생계를 위한 이주를 감행한 ‘이민자’(migrant)의 정체성이 더해지면서 탈북민의 표상은 한층 복잡한 맥락을 갖게 되었다.

‘귀순자’나 ‘귀순용사’라는 용어가 잘 보여주듯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남성으로서 특권 계층에 속해 있거나 군인 출신의 인물들이었으며 대체로 단독으로 탈북하여 입국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이르러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밀입국해 오는 사람들의 수와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 큰 변화가 초래된다. 요컨대 ‘민간인의 집단적 탈북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1948년 최초의 귀순자가 발생한 이후 드물지만 꾸준히 이어져 오던 탈북 사례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한다. 통일부에서 추산한 연간 입국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매해 천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2003~2011년의 경우, 평균 연간 입국 인원이 2천 명에서 3천 명에 이를 만큼 많은 수의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왔다.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총 33,857명(남 9,492명, 여 24,365명)의 탈북민이 입국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sup>25)</sup>

25)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탈북민의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이후부터이다. 2009년 2,914명에 육박하던 입국자 수가 2012년도에는 1,502명으로 감소한다. 그 후 천 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이르러 229명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2021년과 2022년에는 두 자릿수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입국자 수 변동은 북한의 정권 교체로 인해 발생한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통제 및 탈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

이러한 탈북민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기존의 인식과 제도만으로는 현재적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먼저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은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1962)과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1979) 정도에 머물렀으나, 1990년대를 기하여 관련 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새로운 법제가 모색된다. 그 결과 <귀순북한동포보호법>(199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이 제정되었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법제와 정책들, 그리고 지원 제도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특히 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자활의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한다는 취지를 가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전의 법제는 그 세부 내용에 명시되어 있듯이 월남귀순자들의 귀순 목적이나 체제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나, 97년도에 마련된 법률은 조건부적 시혜의 성격을 덜어내고 급증하는 탈북민들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한편,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제들은 한국사회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새로운 타자들을 지칭하는 개념이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의 “월남귀순자”를 대신하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개념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귀순’ 개념에 내포된 의미는 세계적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있던 90년대 후반기의 시점에서 더 이상 시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개념들은 대량 탈북 사태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한 데에

---

면서 입국 인원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탈북 이동 경로 국가의 국경 관리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입국자 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연도별 입국 현황은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무편람』(통일부, 2022) 참조.

는 이러한 현실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해당 법률 제2조에 제시된 개념이 잘 보여주듯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지칭하는 공식 용어가 된다.<sup>26)</sup> 정부나 민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줄임말로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 규정은 사회적 합의 없이 단독적으로 구성될 수 없었는데, 2004년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었으나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폐기되었던 일련의 과정은 상당한 규모로 유입되고 있던 낯선 타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요컨대 ‘우리’라는 이름 속에 위치시킬 것인지를 모색하던 한국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1980년대까지 남한에 유입되던 ‘귀순자’들은 사실 일반 대중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역대 한국정부는 ‘귀순’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관련 인물의 신상이나 탈북 경위 등에 관한 정보는 독점적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탈북자에 관한 이야기는 한층 더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대중에게 전해지게 된다. 2009년 7월 이른바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종합편성채널’(중편)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에는 없던 프로그램들이 대거 제작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가장 빠르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이탈주민을 패넬로 등장시킨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대표 사례에 해당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sup>27)</sup>을 표방하며 2011년 12월 4일 첫 방영을 시작하였는데, 그간 예능 형식의 TV프로그램에 탈북민이 이처럼 고정적으로 대거 출연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모란봉 클럽> 등과 같이 다른 채널들에서도 유사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고정 출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7) <이제 만나러 갑니다> 공식 홈페이지(<https://www.ichannela.com>)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소개 내용이다.



연하는 탈북민들은 “북한의 실상을 생생히 증언”<sup>28)</sup>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이들은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일상 등 각종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실례를 제공하게 된다.

‘북한에 관하여 증언하기’라는 특별한 역할은 사실 1948년 첫 귀순자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탈북민이 깊어져야 했던 중요한 과업이었다. 말하자면 ‘증언자’야말로 사회가 부여한 가장 기대되는 역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증언’은 ‘폭로’의 성격을 띠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귀순자들의 증언은 “북한괴뢰집단의 내막을 여실히 폭로”<sup>29)</sup>한다는 취지를 가졌고 그에 부합하는 이야기들만이 사회에 유통될 수 있었다. 물론, 이때의 ‘폭로’ 행위는 발화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성을 갖고 행하는 주체적 선택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진위 여부는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발화의 의미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귀순자들이 유사한 서사를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재생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발화가 의도와 무관하게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고, 또한 정부의 공식 담화를 보충하는 전거로서 기능했음을 알려준다.

한편, 예능과 시사의 성격을 뒤섞어놓은 이 새로운 형식의 버라이어티 쇼는 다양한 소재를 통해 북한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듯하지만, 여기서 다루지는 내용이나 해석의 방식들은 여전히 관성화된 재현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아울러 자극적인 소재들은 시청자들의 관음증적 욕망을 자극하며 탈북민의 대상화와 북한사회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나 회화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북한사회의 실정이나 탈북 과정 등에 관하여 탈북민 패널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전 시대의 대중들이 접하던 이야기에 비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존의 ‘귀순자’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정형화된 서사의 틀에 부합할 만한 내용들로 채워졌으며, 정부의 공식 담화나 신문과 잡지 같은 활자화된 매체를 통해 전달되었다. 이에 비해 TV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한 탈북민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28) <이제 만나러 갑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인민군 귀순』, 『경향신문』, 1949.9.4.

전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부 관료나 기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전달되는 이 이야기들은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인식(그것은 환상이기도 하다)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들의 신체에서 직접 발화되는 말들은 누군가의 해석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날 것 그대로’인 것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공적 미디어에서의 탈북민의 발화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공적 주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북한사회를 직접 체험한 산증인으로서,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말하는 권위 있는 전문가로서 발화를 이어나가는 일은 ‘주체적 말하기’의 수행과는 멀어지는 순간들을 내포했다. 이들은 발화의 과정에서 ‘희생자’가 되거나 ‘정치적 투사’의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 받기 위한 ‘인정투쟁’을 벌여야 했다. 개인적인 경험은 북한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일로 확대되기도 했고, 정치계의 암투나 지도자의 사생활과 같은 소재들이 가습처럼 다뤄지는 경향이 강하게 표출되기도 했다. 또한 탈북 이후의 정착과정이나 새로운 삶에 대한 성찰적 논의, 혹은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나 비판적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프로그램의 선정적인 주제가 잘 보여주듯이 탈북민의 이러한 발화 방식은 보수적인 미디어 기업의 기획 의도와 무관할 수 없었고 한국사회의 북한 담론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sup>30)</sup>

그런가 하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은 방영이 시작된 초기부터 북한사회의 현실이나 “탈북” 및 “북송”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탈북미녀들”의 입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미녀들의 수다>와 유사한 성

30)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 회차의 주제를 통해 잘 드러난다. “세계 1위 미신 숭배국, 북한”(25회), “북의 출신 성분 북한의 로열 패밀리”(40회), “떡거리부터 잡자리까지! 100% 배급으로 사는 나라, 북한!?”(45회), “북한의 돈 월드”(63회), “북한의 특급비밀! 김부자의 모든 것”(85회), “북한 X파일: 북송”(84회), “북한 X파일: 노래세너”(86회), “현대판 궁녀, 5과”(98회), “북한의 1% 상류층”(101회)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격을 가졌는데, <미녀들의 수다>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미녀”라는 이름으로 호출하여 그녀들로부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게 했다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북한 체험담을 탈북민, 그중에서도 “탈북미녀”의 신체를 통해 발화하게 했다.<sup>31)</sup> 이때 여성들의 발화는 ‘한국사회’와 ‘남성’이라는 두 주체가 수행하는 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탈북 여성들의 말과 경험은 “남한의 지배 담론에 의해 평가”될 뿐만 아니라 “탈북남성에 의해서도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발화가 ‘반공 이데올로기, 남한의 체제우월주의, 가부장적 사회 인식’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음을 알려준다.<sup>32)</sup>

한편, 탈북민의 이야기는 특수하고도 예외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을 수반하고 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말할 것’을 기대하는 제작진과 시청자들에게 탈북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생생하게 전달해야 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갈수록 스튜디오는 ‘고통의 전시장’처럼 변해갔다.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수기 형식의 대중서적이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제작된 탈북민 관련 프로그램들은 탈북민 스스로가 자신의 고통을 직접 재현하도록 이끌었다. 가난한 조국과 비참한 삶들에 대하여, 국경을 넘던 그날의 무섭고도 간절했던 순간들에 대하여, 그리고 곁에서 죽어갔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혹한 최후에 대하여, 그들은 말해야 했다. 이러한 발화들은 당연하게도 매끄러운 서사를 통해 구성될 수 없었으며, 떨리는 음성과 머뭇거림, 혹은 침묵을 통해, 그리고 제어되지 않는 감정들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졌다.

그토록 사실적으로 고통을 재현해야 했던 주체가 다른 누구도 아닌 ‘탈북민 그 자신’이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탈북민에 관한 이

31) “탈북미녀”라는 용어는 각 회차의 주제를 소개할 때에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탈북미녀들의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27회), “탈북미녀들이 이야기하는 민간요법과 보양식 이야기”(29회), “탈북미녀, 중국을 말하다”(54회), “탈북미녀들의 탈북 루트 X파일 전격공개”(56, 57회), “탈북미녀도 깜짝 놀란 북한의 법”(75회), “탈북미녀들이 밝히는 북한의 아킬레스건”(109회)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2) 이선민, 「탈북 여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29권 제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112쪽.

야기를 청취하고자 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탈북민들은 모두가 국경을 넘는 위험천만한 경험을 했고, 그중 일부는 중국에 체류하던 중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북의 수용소로 강제 송환되기도 했다.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성 폭력, 강제혼인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인권 침해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함께 도강하던 중 사살된 이도 있었고 제3국의 지역을 경유하던 중 사망한 이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탈북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실제로 발생한 폭력과 죽음에 관한 것이지만 그들의 체험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경험되지 않을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었기에 고통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가까스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탈북민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한국인 패널리들의 반응(“믿을 수 없다”,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영화 같은 이야기다”)은 이 장면을 함께 보고 있던 무수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대리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폭력적 이야기를 들을 때 갖게 되는 연민과 동정의 감정은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에게 최선의 반응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연민”은 “변하기 쉬운 감정”이므로 그것이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금세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sup>33)</sup> 특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연민은 쉽게 무력함이나 냉소로 전환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사례들 앞에서 감정은 한없이 무더질 수 있다. 수백 회에 걸쳐 현재까지도 방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전달하는 탈북민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접했을 때의 최초의 충격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외면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한다. 북한의 강압적 통치와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은 외부의 주체들(국제기구, 국가, 시민사회, 인권단체 등)에 의해 중재되거나 중단될 수 없는 것으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권위적 발화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렇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은 현실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파급력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실효성 있는 행위

33)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 도서출판 이후, 2004, 153쪽.

를 창출하지 못한다.

서구 출판 시장에서 한동안 큰 인기를 누렸던 ‘탈북 여성 수기’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독자나 관객의 욕망에 부합하도록 재현되는 타인의 고통은 의미 있는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소비’되기 쉽다.<sup>34)</sup> 역설적이게도 불안정하게 벌어져 있는 고통의 서사는 그것이 반복될수록 강렬했던 감정들의 강도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은 우리의 “무능함”뿐만 아니라 “무고함”까지도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 사이의 연결성을 사유하는 힘으로의 전화(轉化)가 촉발되기 위해서는 ‘연민의 중단’이 요청되어야 할지도 모른다.<sup>35)</sup> 또한 연민의 감정은 관계의 위계를 전제하며 동시에 그것을 재생산하는 일에도 관계된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북한에 부여되기 시작한 ‘빈곤’의 이미지가 ‘원조국’이라는 남한의 자기 표상에도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 전하는 소식들에는 빠짐없이 북한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묘사와 함께 시혜적 관계로 맺어지는 남북한 두 주체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는데, 이러한 재현은 위계적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진정으로 감사를 표하기’, 또는 ‘위계를 인정하기’와 같이 타자에게 기대되는 반응이나 역할을 그들이 수행하지 않을 때, 연민은 언제든 쉽게 철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민이 빠르게 ‘혐오’의 감정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비단 탈북민이나 북한주민과 관련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나 외부에서 온 타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발견된다. 빈곤 계층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해 제공되는 별도의 정책이나 제도는 필수적이거나 마땅한 것이 아니라 시혜적으로 배풀어지는 사회적 배려로서 이해되기 쉬우며, 때로 이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해지기도

34) 김성경, 「글로벌 대중문화와 생존자의 이야기: 해외출판 탈북 여성 수기의 식민적 시선과 젠더화된 서사」, 『한국여성학』 제38권 제2호, 한국여성학회, 2022, 7쪽.

35) 수전 손택, 앞의 책, 154쪽.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들은 탈북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특혜로서 해석되며 정책의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그들이 ‘우리의 배려’를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수용하지 않을 때, 심지어는 그것이 배반당했다고 여겨질 때, 그들은 빠르게 ‘뻔뻔한 타자’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북민이 ‘간첩’ 의혹으로부터 가장 안전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입국해서 탈북민이 제일 먼저 대면하게 되는 상황은 국가에 의한 신원 확인 절차인데, 이것은 ‘간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가졌다.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사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들은 귀화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획득한다. 또한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언제든지 간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정착 이후의 삶 역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많은 탈북민들은 아마도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체제에서의 삶이 곧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와 가능성을 내포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이라는 이력은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는 것이었으며, ‘자기 증명’의 시작과 끝은 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는 아마도 자기의 신원에 대한 보증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비극처럼 경험되었을 것이다.

#### 4. 타자의 자리, 혹은 환대에 대하여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이 가지는 사회 내 위치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 이들은 ‘동포’나 ‘외국인’과 같은 개념으로 온전히 포착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이면서 ‘타자’이고 또한 ‘타자’이면서 ‘우리’인 모순적이고도 복합적인 위상

을 가진다. 이 존재들을 향해 있는 동포애와 적개심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며 한국인들의 의식에 작용한다.

‘귀순동포’는 한때 탈북민을 지시하는 호칭 중 하나였다. 분단 직후부터 한국사회는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에 관한 담론을 매개하여 그들을 ‘동포’로 호명하였고, 이러한 재현체계 안에서 귀순자는 그 자체로 ‘북한동포’ 전체를 대표하거나 상상하게 만드는 기표로 기능했다. 귀순자나 북한 주민을 ‘동포’로 호명하는 일은 단일민족담론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었으며, 또한 북한의 지도자나 정치체로부터 내부 구성원인 북한 주민을 분리시킴으로써 양자가 서로 다른 차원의 의미를 부여받게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내포했다. 그러나 탈북민 관련 법제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귀순자’라는 말과 함께 ‘동포’라는 용어도 2000년대가 시작될 무렵 폐기된다. 민족주의 담론 안에서 그들은 동포로 호명되었지만, 북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온전히 동일시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탈북민은 이주민이지만 동포라는 점에서 외국인 일반과는 다르며, 동포이지만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북한 출신이라는 점에서 세계 여느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동포들과도 차별화된다. 또한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출신의 ‘동포’라는 탈북자들의 복합적 지위”는 한국인들이 가지는 “복잡하고 이중적인(ambivalent) 심정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sup>36)</sup>

탈북민들은 단일민족담론의 논리에 따라 같은 역사와 종족성의 담지자로 표상되지만, 동시에 남한보다 ‘열등한 체제’에서 살아온 과거를 지녔다는 점에서 다시 사회화되어야 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는데, 이러한 대상화는 나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는 주체로 상정하는 과잉 일반화를 초래함으로써 탈북민 전체를 하나의 단일한 이미지 속에 복속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sup>37)</sup> 대한민국의 주민들이 단일한 정체성을 통해 설명될 수 없듯이, 탈북민 역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며 서로 다른 주체들로 구성된

36) 손애리·이내영,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19권 제3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2, 10쪽.

37) 이선민, 앞의 글, 80쪽.

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성이거나 장애인일 수도 있으며 성소수자일 수도 있다. 혹은 이 모든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탈북의 이유 역시 ‘자유를 찾아왔다’거나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이질적이다. 그런 점에서 탈북민과 북한 주민 전체를 ‘압정과 기아에 시달리는 희생자’로서만 표상하는 일은 집단 구성원들이 가지는 다양한 주체성의 맥락을 소거해 버릴 위험을 내포한다. 이것은 탈북이라는 현상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면,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탈북민은 외국인과 같이 상상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외양을 하고 있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한반도의 오랜 역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존재로서 상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질적인 발음과 억양을 구사하는 존재로 현시되는 순간들마다에서는 동화가 불가능한 이질적인 타자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탈북민이나 중국조선족을 재현하는 매스미디어와 문화예술 텍스트들이 ‘우리’로 온전히 수렴되지 않는 내부의 타자들을 재현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다름 아닌 구어로서의 ‘말’을 현시하는 일이라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른 발음과 억양 체계가 빚어내는 이질성은 그들이 아직, 더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과 대면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언어와 발화가 빚어내는 이질성의 시간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차별과 모욕을 받게 되는 순간을 초래한다. “말투”는 하나의 “문화적 소통방식”일 뿐이지만, 이것은 이해와 존중 속에 수용되지 않으며,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게 하고 심지어는 ‘차별’과 ‘무시’를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sup>38)</sup>

그런 점에서 북한식 억양과 발음을 억압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표준어를 체득하게 만드는 외부적 힘들은 ‘언어’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동화(同化)의

38) 2021년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중 상당수가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응답자의 77.7%)을 “차별·무시”의 주된 요인으로 선택했다.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22, 71쪽.



기제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모방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려는 의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언어적 동화 과정을 겪기 마련이지만, 이것이 사회적 차원에서 강요된 것이 될 때에는 단일성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귀순자, 탈북자, 새터민,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용어는 분단 이후 한반도의 두 체제가 새롭게 경험하게 된 중요한 역사적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모색된 언어로서 특정한 행위 주체를 표상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것은 또한 일군의 집단을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추상적 단위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의 대상에 대해 갖는 우리의 인식은 단 하나의 표상이나 담론으로만 구성될 수 없으며, 또한 이때의 인식 역시 그 자체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지는 특정 대상을 기술하는 유일무이한 언어일 수 없다.

아울러 북한 주민이기를 그만두는 일과 북한사회를 비판하는 일은 일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을 비판하는 일이 곧 남한사회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일로 곧바로 환원될 수도 없다. 또한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증언의 몫은 당위적 성격을 내포하지 않으며 반드시 폭로의 형태로 수행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방식의 증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정투쟁은 발화자로 하여금 북한의 통치방식과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사회나 문화, 주민들의 일상적 삶까지도 열등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유도 하며, 또한 그렇게 말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것은 폭력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북한의 정치 현실에 대한 부정이 곧 자기와 공동체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 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살아온 생을 부정하는 일과 관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자기 진술과 폭로는 탈북민을 향해 있는 한국사회의 시선이 ‘환대’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준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 ‘간첩’ 유무를 확인받는 정체성 검증의 시간을 예비하고 있었다면, 이후의 삶은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그리고 ‘진정한 한국인’으로 가닿는 여정은 어쩌면 평생을 두고 행해질지 모를 과업과도 같다.

어렵게 획득한 공적 발언권이 자기의 경험과 삶, 그리고 인식과 상상을 보다 자유롭게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또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계기를 내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듣기의 윤리’가 요청된다. 여기서 ‘듣기의 윤리’는 새롭게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환대’하는 일이 전제될 때 실현 가능해진다.<sup>39)</sup> 북한 체제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일이 자기 삶이 부정당하는 순간을 내포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말은 하나의 증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청취 가능한 언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말하지 않을 권리’ 역시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은 그러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대가로 해서’ 재현되지 않을 권리를 그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특정한 서사 내용(“나는 탈북자다”)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서사의 편집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sup>40)</sup> 정체성에 대한 인정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권리와 말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자기의 서사에 대한 편집권이 주어질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 다르게 말하기를 수용할 수 없는 사회에서 환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며, 타자의 자리 역시 그렇기 때문에 마련되기 어렵다. 어쩌면 환대에 보답하기를 그만둘 때, 환대의 가능성은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39) 김경연·황국명, 「경계에서 이야기하기: 탈북여성의 자기서사와 ‘다른’ 고백의 정치」, 『코기토』 통권 97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104쪽.

40)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215쪽.

## ■ 참고문헌

### 1.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22.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무편람』, 통일부, 2022.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엮음, 『(황석영 북한 방문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시와사회사, 1993.

<공동경비구역 JSA>(2000)

<사람의 불시착>(2019~2020)

<이제 만나러 갑니다>(20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BBC 드라마 <Sherlock> <https://www.bbc.co.uk/programmes/b018ttws>

Showtime 드라마 <Homeland> <https://www.sho.com/homeland>

### 2. 단행본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로버트 단턴, 박영록 옮김, 『검열관들: 국가는 어떻게 출판을 통제해왔는가』, 문학과지성사, 2021.

마르쿠스 가브리엘, 김남시 옮김, 『예술의 힘』, 이비, 2022.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 도서출판 이후, 2004.

테드 휴즈, 나병철 옮김,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자유의 경계선』, 소명출판, 2013.

### 3. 논문

김경연 · 황국명, 『경계에서 이야기하기: 탈북여성의 자기서사와 ‘다른’ 고백의 정치』, 『코기토』 통권 97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김성경, 『글로벌 대중문화와 생존자의 이야기: 해외출판 탈북 여성 수기의 식민적 시선과 젠더화된 서사』, 『한국여성학』 제38권 제2호, 한국여성학회, 2022.

박명진, 『타자와의 조우, 망각된 미래의 현상학: 분단 체제에 말을 거는 3편의 영화』, 『문학과사회』 통권 제53호, 문학과지성사, 2001.

박유희, 『고립된 전사, 경계의 타자: 탈냉전시대 한국전쟁 영화에 나타난 ‘北’의 표상』, 『민족문화연구』 제58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백문임, 『탈이념의 정치학: <쉬리>, <간첩 리철진>, <공동경비구역 JSA>』,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공동경비구역 JSA』, 삼인, 2002.

손애리 · 이내영,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19권 제3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2.

이선민, 『탈북 여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29권 제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이현진, 『분단의 표상, 간첩: 2000년대 간첩영화의 간첩 재현 양상』, 『씨네포럼』 제17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3.

임유경, 『북한 담론의 역사와 재현의 정치학: 1950~1970년대 북한 담론의 형성과 변환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6집, 상허학회, 2019.

한영현, 『탈냉전 시대 한국 영화와 분단의 심상지리적 상상력: 영화 <고지전>과 <공동경비구역JSA>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제15권 제3호, 문학과영상학회, 2014.

# Hostility and Hospitality

–History of Division and Cultural Representations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Defectors –

Lim, Yu-Kyung\*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divers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y examining the social existence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cultural representations surrounding them. North Korean defectors represent the historical realities that the two system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faced since the country's division, and they serve as a medium for understanding how North and South Korea have constructed mutual understanding in their relations. The complex and contradictory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both 'us and others' and 'others and us' highlights the ways in which North Korea has been present in South Korean society. Moreover, the cultural history of the represen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underscores that 'the place of the other' can only be established based on the right to speak, the freedom not to speak, and the right to edit narratives.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 longer considered solely as 'refugees' or 'outsiders', but they are also an integral part of the community, and the various issues that arise in relation to them are compelling South Korean society to reflect on the multifaceted reality. Therefore, humanistic research on the representation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defectors is not only timely, but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a

new reflection on the nearly 70-year history of division. Additionally, as the issue of how North Korea is represented is closely linked to South Korean society's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its self-perception as "we", this approach may also be valuable for examining how South Koreans represent themselves.

**Key words** : division, representation of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cultural industry, hostility, hospitality, place of the other, <There was a man living(North Korea Travelogue)>, <Joint Security Area(JSA)>, <Crash Landing On You>, <Now On My Way to Meet You>